

“환영과 우려 엇갈려도 책은 남는다”

출판저널 창간5주년 기념세미나 종합토론

김병익—— 모두 세가지 주제로 나는 가운데 책의 미래와 미래의 책에 대한 진지하고 의미 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 세미나를 준비하며 주제를 설정하고 원고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히 까다롭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는데, 의외로 흥미롭고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른바 ‘아우라’의 붕괴를 우려하는 입장에서 역사의 새로운 르네상스라며 환영하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책이 초래할 변화를 전망하는 시각의 진폭이 제각각 매우 크다는 점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앞서 있었던 세차례의 발표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책과 책의 미래라는 큰 주제에 관련된 포괄적 논의들이 이번 종합토론 시간을 통해 제기되기를 기대한다. 이와함께 한국적 현실에 대한 논의들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먼저 우리 출판현장의 일선에서 누구보다 오랫동안 일해온 이경훈사장의 발언을 청한다.

이경훈—— 주제와 관련된 미래전망은 사실상 내 능력으로 벅하다. 그러나, 우리 출판과 책의 미래를 바림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해결돼야 할 문제들에 대해선 할 말이 없을 수 없다. 첫째는 학교교육 내실화의 문제로, 예컨대 국민학교 교과서는 그 교과내용 자체가 책 읽기를 자극하고 유도하는 쪽으로 개편돼야 한다. 둘째는 이미 만들어진 책을 실수요자인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시키는 문제로, 그 가장 중요한 몫을 담당해야 할 도서관과 서점의 형편이 우리나라는 아주 열악하다. 현재 2천명이 넘는 정구대학 출신 사서들이 갈 데가 없어 방황하고 있고, 서점의 매장에서 대출 출신 직원을 찾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는 정부나 행정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문제다. 오래 전에 일본의 한 도시를 방문해 그곳의 시청 PR지를 본 적이 있는데, 한 시민이 투고하기를 자신이 내는 市稅가 2만엔인데 시립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책은 20만엔이 넘는다고 하며 정당국자를 치하하고 있었다. 우리도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는 생각이다. 세금으로 책을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김병익—— 책과 출판에 대해 가장 고전적인, 그러면서도 여전히 유효한 지적이었다. 그럼 이번에는 가장 모던한 입장에서 있다고 생각되는 권택영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권택영—— 책의 미래는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다. 모든 역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며 그 새로운 역사에 배반당한다. 책도

마찬가지여서, 재래적 의미의 종이책과 미래의 책 또한 저항과 흡수의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컴퓨터 때문에 책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좋은 책은 어느 시대에도 늘 있어 왔고, 책을 읽고 느끼는 감동도 다름이 없다. 다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을 뿐이다. 그것을 선별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다. 「출판저널」도 우리시대에 이르지 못한 고전이 있다는, 좋은 책을 선별하고 증언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 주기 바란다.

주인석—— 이중환선생에게 문화의 동시화가 갖는 위험은 없겠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테크놀로지가 첨단화, 광역화함으로써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국에는 테크노-파시즘으로 치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복선생 발표에 대해서는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경제’를 중심으로 글쓰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모든 글쓰기가 경제나 합리성, 효율성과 같은 범주 안에서만 이뤄지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김병익——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토론의 말미에 따로 모아서 듣도록 하겠다. 이 자리에는 신문 잡지의 문화부 기자들이 몇분 와 있는데, 기자로서가 아니라 직접 시를 쓰고 평론을 하는 작가와 저자로서의 견해를 들었으면 한다.

박해현—— 컴퓨터시대의 글쓰기와 저자, 독자가 갖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자리에 초청해줘 고맙다. 일찍이 트로츠키는 사회주의가 완성될 때 인간의 모든 언어는 노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컴퓨터를 대입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 완벽한 컴퓨터시대가 도래하면 모든 독자는 저자가 될 것이라고. 이처럼 독자의 저자로서의 전이가 용이해지고, 글의 조합과 편집, 혹은 요즘 우리 문단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혼성모방’ 등이 유행하게 될 컴퓨터시대에는 문학의 오리진리티 문제가 중심적인 화두가 되리라는 생각이 든다.

남진우—— 책의 위기, 저자의 죽음에 대한 일련의 논의들을 접하면서 책이나 문학의 존재근거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글쓰기를 업으로 삼는 이들은 이런 시대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문단의 일부 젊은 작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지난달 25일부터 서울간 춘천 리오호텔에서 개최됐던 「출판저널」 창간5주년 기념 세미나.

인 변화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해야겠다는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가 오히려 부정적인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고급 문화를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시대적 변화에의 대응이라는 강박관념에 젖어 알게 모르게 표피문화의 선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문재—— 비슷한 생각이다. 컴퓨터시대의 문학과 글쓰기, 작가의 의미를 심각하게 반성하는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과 작가는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과연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가 등이 두서없이 떠오른다. 이른바 ‘혼성모방’이라고 명명되는 요즘 글쓰기의 한 풍조랄까 방법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는 내게 특히 큰 의문이다. 복선생의 답변을 부탁한다.

김병익—— 창작보다는 편집이 성행하고 그 같은 편집이 창작으로 용인된다면 누구나 다 아티스트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음악에서도 작곡가라는 개념이 엔지니어로 대체되는 않을까?

서우석—— 아직 엔지니어의 개념까지는 있다고 할 수 없겠지만 작곡가의 개념이 상당히 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연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작곡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으로 통제돼왔다. 그 통제는 가령, 어려운 학습과정이나 음악문법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떤 소리를 낼 것인가에 대한 각 문화권의 공인된 합의를 따르지 않는 이는 작곡가로 간주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사정은 많이 달라졌다.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스처럼 뮤직프로세스가 개발돼 화면에 나오는 오선지에 악보를 기입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연주해 줄 정도까지 왔다. 피아노

건반을 즉흥곡으로 두드리면 컴퓨터가 악보화시켜 주기도 한다. 글쓰기에서 붓 먹 베투 등의 까다롭고 불편한 필기구가 컴퓨터 키보드로 발전한 것처럼 작곡가의 필기구도 많이 편리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편리함은 모든 독자의 저자로의 전이가 용이해지듯 누구나 작곡을 할 수 있는 시대를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기계적 조작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겠는가 여전히 의문이지만, 기왕의 작곡가像이 공격받고 허물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김병익—— 그렇다면 시인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다. 오규원선생은 시 속에 광고문안을 삽입하는 등으로 전통적인 의미와 상당히 다른 시를 쓰고 있다. 그런 시와 그 시를 쓰는 시인은 전통적인 의미의 시와 시인의 개념에서 과연 얼마나 멀리 벗어나는지?

오규원—— 조금 다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삶의 양태가 변하면서 시인이 노래하는 대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사람들이 변한 삶에 대해 너무 무신경하고 무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예전에는 숲속 오솔길에서 꽃을 보며 걸었지만, 지금은 도심의 거리에서 상점과 간판들을 보며 걷는다. 시에 광고문안을 집어넣는 것은 그래서 자연스럽다. 대상의 변화를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다. 아주 일상적이고 보잘것없는 소재가 시 속에 들어오면 매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일상공간이 예술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인의 머리 속에서는 일종의 존재전이가 이루어진다. 광고문안을 예로 들면, 나는 그것을 내 나름으로 조작하고 재해석한다. 광고문안을

광고 속에 넣으면 원래의 언어적 의미가 왜곡되지만, 그 왜곡되고 타락한 언어를 시 속에 넣으면 의미의 세탁이 이루어진다. 물론 단순히 옮겨놓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첨가되어야 한다. 내 시를 읽은 주위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나이값 하는 게 어떡하고들 하지만 내게는 이것이 자연스럽다.

김병익 — 오선생의 시창작 비밀까지 엿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다음은 안상수선생에게 북디자인의 측면에서 본 미래전망을 부탁한다.

안상수 — 컴퓨터에 대한 내 일관된 생각은 “게을러서 쓴다”는 것이다. 컴퓨터는 재미 머리만도 못한 반도체를 가진 하드웨어일 뿐이며, 내 작업의 편의와 효율성을 돕는 단순한 도구로서 그것을 이용할 뿐이다. 디자이너로서 거부할 수 없는 생존의 도구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사실은 컴퓨터를 싫어한다. 그런 컴퓨터의 여러가지 장점을 이용하려는 노력을 더 극대화하고 그 실험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책의 미래에 보다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가령, 앞선 주제발표에서 하이테크 하이테크라는 말이 나왔는데, 현재 미국의 디자인계에서는 ‘로우테크 하이테크’의 바람이 불고 있다. 컴퓨터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는 데는 이처럼 실험예술적인 접근이 유효하며 또 필요하다고 본다.

김병익 — 컴퓨터를 경멸하면서도 그것의 장점은 적극 이용한다는 안선생의 말에서 현대의 진지한 정신이 갖는 미덕을 발견한다. 로우테크 하이테크라는 말에서 얼핏 포스트모더니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데, 권택영교수에게 최근들어 한창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청한다.

권택영 — 문화를 통틀어 볼 때 모든 문화는 예외없이 개인화와 자유화, 다양화를 향해 진행해왔다. 포스트모더니즘이나 모더니즘, 다다이즘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데카르트도 그 이전의 문화와 철학을 개인화와 자유화, 다양화로 전전시켰다. 반면, 어떤 문화든 일단 공적인 타당성을 획득하면 도그마가 된다. 다음에 올 문화의 개인화와 자유화, 다양화를 억압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물론 모더니즘에 대한 저항이다. 그러나 모더니즘의 완벽한 전복을 기도하지는 않는다. 문화의 저항 또한, 한편으로 과거의 문화에 대해 저항하면서 한편으로 과거의 문화를 끌어안는다. 보편성에 대한 저항이란 특징을 갖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경우, ‘재현’을 반대하면서도 방법론상으로는 ‘독백’이 아니라 ‘서술’의 전략을 택하고 있다. 재현의 형식을 빌어 재현을 거부한다는 것인데, 재현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모더니즘 親리얼리즘이요, 재현을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반리얼리즘 親모더니즘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는 과거의 문화를 거

부하려는 노력과 그것을 다시 꺼안으려는 노력이 합쳐져 있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며, 로우테크 하이테크 또한 이런 측면에서 이해돼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김병익 — 문화사의 전개는 반복의 형식인 것 같으면서도 결코 단순반복이 아닌, 저항과 감싸안음의 두 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무척 시사적이다. 그럼 이제 잠시 미뤄두었던 발표자들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 토론을 마무리짓도록 하겠다.

복거일 — 문학하고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들 때문인지 경제논리란 표현이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경제논리란 곧 합리성의 다른 표현이다. 합리성이란 말 또한 거부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모든 생물의 피할 수 없는 생존의 조건이다. 미친 사람도 제 나름으로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작가 또한 작가가 노리는 작품의 효과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의 원칙에 기대고 따를 수밖에 없다.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 글쓰기에 대해서는 선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가능한 많은 여지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실험의 여지를 주지 않을 때 발생하는 폐해가 훨씬 크다. 잘못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어주어야 하며, 가치판단도 글쓰기의 논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도덕적 차원이 개입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이중환 — 하이테크시대가 가능하게 만드는 문화의 동시화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냥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제국주의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보를 안보여 줄 수도 있고 내보여줘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이테크시대는 그 나름으로 인간들 속에 파고들어오며 현실이 돼가고 있다. 하이테크가 하이테크까지도 해결하려드는 추세다. 하이테크시대의 문화의 동시화를 문제로 삼고 시비를 걸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데는 의문이다.

김병익 — 미래에 대한 우려와 환영의 교차를 보며 하이테크시대의 정보화사회가 프랑켄슈타인이 될지, 아니면 인간을 돕는 터미네이터가 될지 착잡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로서는 기계의 인간적 가능성에 기대를 건다. 이틀에 걸친 주제발표와 토론을 마감하겠다. 책은 분명히 변하며 우리는 이미 그 변화의 와중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그러나 책의 본질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책의 미래는 바뀌겠지만 미래의 책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 속에서 우리가 기울여야 할 노력은 어떤 것이겠는가 등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하는 좋은 기회였다. 진지하고 열띤 논의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철이네 독서발표회

철이네는 올 여름 휴가를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집에서 책을 읽은 후, 가족 독서발표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철이 엄마와 아빠는, 평소에 읽고 싶었지만 이리저리한 일 때문에 읽지 못했던 책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중에서도 몇 권을 간추렸습니다.

철이에게도 적합한 책을 읽히기로 했습니다.

닷새 동안의 휴가가 끝나는 마지막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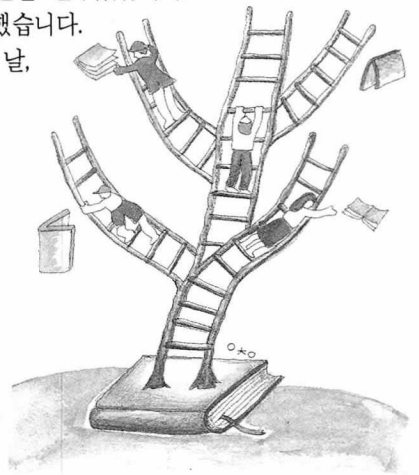
철이네 가족은 각자 읽은 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철이도 엄마와 아빠의 얘기를 자못 진지하게 듣고 나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난 오늘 밤 일기장에 아주아주 많은

얘기를 쓸거야.”

장난꾸러기였던 철이의 지혜의 키가 한층 커 보였습니다.



<바른글방>과 <미필적고의>에는 책만들기의 으뜸가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른글방>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출판기획상담 • 단행본·잡지 등 기획출판 대행 • 운문·교열·교정 대행 • 본문편집
- 단행본·아동물·참고서 등 전산조판 입·출력

▶<바른글방>에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 원전편집 가능한 KCE 편집입력기 SUPER WRITER 15대 • 300LP 1대
- ECRM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출판·전문·집·단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7-9
한샘빌관 3층
전화 325-5366 (대)
325-5363-5
325-6484-5
팩시 325-5362

이 눈빛을 기억해 주십시오!



2명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이제 5명의 디자이너가
10개월째 표지·책의
얼굴만을 꾸미고 있습니다.

디·자·인·전·문·집·단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7-9 한샘빌관 3층
전화/325-5366 (대)
팩시/325-5362

미필적 고의의 눈은 살아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